

“남해안 세계적 해양 관광지 만들자”...경남·부산·전남 맞손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협약 천혜의 섬·갯벌·해안 자원 바탕으로 수도권 버금가는 새 성장축 육성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가 천혜의 섬·갯벌·해안 등 세계적 해양관광자원의 보고인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세계의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는 남해안을 지중해와 멕시코 칸쿤에 버금가는 세계적 해양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뛰어난 역사문화 자원을 자랑하는 남해안을 글로벌 신해양 관광·휴양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해 대한민국 관광을 견인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김영록 지사, 박완수 지사, 박형준 시장과 오동훈 국립심장질환연구소장, 이진철 전남관광재단 대표, 부산관광공사 등 관계 출연기관장, 3개 시·도 실장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개 시·도지사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리적 장점과 아름다운 섬과 갯벌 등 천혜의 자연유산, 독특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과 연계한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공동 발굴·추진 ▲케이(K)-관광 세계화 선도를 위한 관광브랜드 및 관광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왼쪽부터)이 28일 오전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열린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상생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상품 공동 개발 ▲세계인이 찾는 휴양벨트로 만들기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등이다.

또 ▲국가 주도의 광역관광권 개발을 위한 (가칭)남해안관광개발청 신설 공동 노력 ▲사업 추진 동력확보를 위한 민·관 전문가가 함께하는 추진 협의체 구성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하동 세계 차 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제는 육지가 아닌 해양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며 “협약

을 계기로 3개 광역시·도가 힘을 모아 국가 해양관광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남해안을 세계 속에 빛나는 해양관광·휴양 중심거점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전남도는 광주시, 경북도, 경기도와 상생발전 협약을 연이어 하고 광역 협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기도(10월 28일)와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공영’을, 경북(10월 11일)과 새로운 영호남의 상생 비전을 선포하고 이웃하는 광주(7월 28일)와 ‘경제공동체 동맹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복합쇼핑몰 본격화’ 우수정책 선정

광주시 ‘올해의 베스트 5’...물절약 홍보·무등산 정상 개방 등

복합쇼핑몰 유치 본격화와 56년 만에 되찾은 무등산 정상 등이 2022년 광주시 베스트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한 주요 정책 중 성과가 뛰어나고 시민의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올해의 베스트 5’ 우수정책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시 간부 공무원 설문을 거쳐 10개의 후보사업을 확정한 후 시민, 시의원, 공무원 등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광장 광주온(ON) 설문조사 등을 통해 5개의 우수정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의 베스트 5 우수정책 중 1위는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본격 추진이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최고 수준의 민간 투자, 상생과 연결을 위한 국가 지원, 시의 신속·투명한 행정 지원 등 3대 원칙과 5대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쇼핑몰 제안서 접수 시차를 공식화했다. 지난 11월 현대백화점 그룹이 제안서를 제출

했고 도시계획변경 논의를 위한 협상조정협의회와 윈윈플랫폼 행정처리 관련 신협력협정체제를 본격 가동하는 등 신속·투명·공정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쇼핑몰 유치를 집중하고 있다.

이어 2위 가뭄극복 물절약 홍보, 3위 ‘맘편한 내☆일, 광주아이키움2.0’ 출생부터 성장까지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 강화(성장단계별 돌봄지원 정책 / 광주아이키움.kr), 4위 56년 만에 무등산 정상 시민의 품으로, 5위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 실시실제 타당성 재조사 통과 등의 순이었다.

김영근 광주시 평가데이터담당관은 “복합쇼핑몰, 물절약, 육아 등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이 ‘올해 베스트 5’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며 “내년에도 시민이 행복한 광주 실현을 위해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첫 달궤도선 ‘다누리’ 달궤도 진입 성공

새해 본격 임무 돌입...진입기동 3회만에 성공

우리나라 첫 달궤도선 ‘다누리’(KPL0-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가 27일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발표했다.

지난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네버럴의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지 145일 만에 임무 궤도에 안착한 것이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다누리는 26일 오전 11시 6분께 마지막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했으며, 이튿날 임무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다누리는 현재 목표한 궤도인 달 상공 100±30km에서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

임무궤도 진입기동이란 다누리를 달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궤도선의 추력기를 사용하여 속도를 줄이며 달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다.

항우연은 당초 다누리의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총 5회 수행하기로 했으나 3회만에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

이달 17일 첫 진입기동에서 다누리의 비행 테

이터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기동 운영 안정성을 확인한 뒤 남은 4회 기동을 2회로 단축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이에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도 당초 계획에서는 29일에 확인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진 27일에 확인됐다.

다누리는 새해에 탑재체 초기 동작을 점검하고 본체 기능시험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초기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누리가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하면 우리 정부는 2032년 예정된 달 착륙과 이후 자원 개발 등 우주 개발 사업으로 나아가 첫 발걸음을 떼게 된다.

다누리에 실린 탑재체 중 항우연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는 최대해상도 2.5m로 관측폭 10km 이상의 달 표면 관측 영상을 찍는다.

항우연은 고해상도 카메라로 얻은 달 표면 정보를 활용해 달 착륙선 후보지를 탐색할 계획이다. 또 다누리에 실린 광시야편광카메라(한국천문연구원)와 감마선분광기(한국지질자원연구원)는 달에 매장된 자원을 탐색하는 데 쓰인다. /연합뉴스

병사월급 2025년 150만원 日급식비 1만5천원 단계적 인상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이 오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오르고, 1일 급식비도 1만5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지만, 중·소령 등 중간 간부는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와 같은 50만명 수준으로 2027년까지 유지된다. 전체 정원은 유지되지만, 간부 규모가 현재 상비병력의 40.2%인 20만 1000명에서 40.5%인 20만 2000명으로 늘어난다.

군은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할 계획으로, 간부 중에서도 중간 간부 확대가 두드러진다.

병사 봉급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2025년까지 150만원(병장)으로 올리고,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55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상향된 장병 1일 기본급식비 단가는 2025년까지 1만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국 육성을 위한 인력·인프라 확보도 서두른다. /연합뉴스

3년째 이어지는 인구 감소...10월 출생아 역대 최저 출생아 줄고, 사망자 늘어...올해 1~10월 9만6천명 자연 감소

우리나라 인구가 만 3년에 걸쳐 내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구는 올해 들어 지난 10월 까지 10만명 가까이 자연 감소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658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1명(-0.4%)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작성시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이로써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013명(7.3%) 증가한 2만9763명으로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10월 인구 자연 감소분은 910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사망자 수가 줄고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특히 올해 1~10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9만5879명에 달했다. 이 기간 출생아 수(21만2881명)가 전년 동기보다 4.8% 줄고, 사망자 수(30만8760명)는 19.8% 급증한 여파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세종(8.5명)의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8명을 넘겨며 가장 높은 조출생률을 기록했다. 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3.8명)으로 3명대에 그쳤다.

10월 혼인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혼인 건수는 1만 5832건으로 1년 전보다 629건(4.1%) 증가했다. 다만 혼인 건수 자체는 작년 10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작년 코로나19의 여파로 혼인이 대폭 감소한 탓에 올해 혼인이 소폭 늘긴 했지만, 전체 시기를 통틀어서 보면 혼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단층공방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억)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장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토지 금매

광주광역시 남구 입암동 692(호천 1지구) 대지 683.4㎡ (207평)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2면 도로접(중로1류, 소로2류)
- 5층 건물 신축 가능(대형식당,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등 다양한 상가와 1주택 건축 가능)

매매가 : 18억 4천만원

010 - 3605 - 8564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고척 조대부고 총동창회 “2023 신년음악회”

- 일시 : 2023. 1. 5(목) 18:00
- 장소 : 조선대학교 대호전기홀
- 전화 : 062-224-1461
- 대상 : 전 동문 가족동반
- 떡국, 다과, 주차권 제공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 광 태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방 문동준(621014-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동문대로204번길 11-10, 103호(간화동)
· 상속인 방 문준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년1384호로 신청하여 2022년 12월 2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2월 29일
· 상속인 : 1. 김서희(841213-XXXXXX) 여주시 소라면 죽림로 10, 102동 901호 (죽림사당으로부영1차)
2. 김준상(860831-XXXXXX) 여주시 화신3길 20, 2층 (화향동)
· 신고기간 : 2022. 12. 29. ~ 2023. 3. 10.
· 채권신고처 : 상속인 1.김서희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방 김지희(79010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동문대로 182, 나동 816호 (행암동, 상아마을)
· 상속인 방 김지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년591호로 신청하여 2022년 12월 2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2월 29일
· 상속인 : 1. 김길용(460827-XXXXXX) 개서시 사동면 두동로 72-1
2. 조진호(500605-XXXXXX) 개서시 아주2로 137, 204동 1801호 (아주동, 아주·편한세상 2단지)
· 신고기간 : 2022. 12. 29. ~ 2023. 3. 10.
· 채권신고처 : 상속인 1.김길용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목차와 함께 같은 길 70년
先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227-9600 | 신문구독 220-0551 | 예약구독 220-0550